



## ‘시련의 봄’ 타이거즈 긴 호흡으로 ‘가을 준비’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 이탈로 시련의 봄을 보내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

〈KIA 타이거즈 제공〉



줄부상·투타 엇박자에 하위권 추락 ‘굴욕’  
김도영 복귀 늦어지고 궤도규 사즌 아웃  
이범호 감독 “선수들 완벽할 때 복귀해야”

KIA 타이거즈가 긴 호흡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린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예상과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줄부상 속 투타의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하위권에서 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야구가 없던 ‘14일’은 KIA에 중요한 날이었다. 이날 부상으로 빠진 김도영, 김선빈, 궤도규의 재검진이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일단 궤도규가 좌측 주관절 굴곡근 및 인대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궤도규는 지난 시즌 71경기에 나와 55.2이닝을 소화하면서 KIA 허리 싸움을 펼쳐준 ‘우승 주역’이다. 궤도규는 올 시즌에도 불펜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기다렸던 김도영의 복귀도 늦어지게 됐다.

김도영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실전 준비까지 끝냈지만 검진 결과는 조금 달랐다. MRI촬영 결과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1주일가량 재활·치료 과정을 진행한 뒤,

재검을 받게 됐다.

그나마 김선빈의 ‘이상 무’ 소식이 위안이 됐다.

지난 5일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김선빈은 기술 훈련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리고 16일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을 하게 된다.

15일 KT 위즈와의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완벽하게 돌아오는 게 첫 번째다. 1주일 정도 더 지켜보겠다. 돌아왔을 때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다. 본인 생각보다는 병원 검진 결과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라왔을 때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니가 확실한 판단이 들 때 올리겠다”고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김도영의 복귀를 준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선빈은 퓨처스 리그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주말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김선빈은 내일 퓨처스 지명 타자로 나간다. 2타석 정도 치고 다음 날 수비까지 하고 괜찮으면 트레이닝 파드와 상의해서 주말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격과 수비 모두 테스트를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주말 두산 원정부터 김선빈이 합류할 전망이다. 궤도규의 공백은 기존 멤버로 채우면서 풀어갈 계획이다.

“다른 선수는 시간 지나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궤도규의 부상을 언급한 이범호 감독은 “좋은 성적을 내줬던 선수다. 수술해서 잘 배우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 멋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는 부상 선수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지민, 이준영, 김대유로 대체를 해야 한

다. 퓨처스에서 김기훈이 컨디션이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오른쪽 투수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이다”며 “이의리가 6월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도규 없는 상황을 짜서 경기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에도 KIA는 선발진의 줄부상으로 고전했다.

선발 4명이 동시에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완벽한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보수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했다. 144경기 장기 레이스인 만큼 당장 눈앞의 상황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즌을 풀어갔고, 최고의 전력으로 ‘가을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 압축을 만난 KIA가 이번에도 위기를 넘고 원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마스터스 5위 임성재 ‘특급 대회 다시 한번’

17일 PGA 투어 RBC 헤리티지 출전…세플러 등 상위 랭커 총출동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5위로 선전한 임성재(사진)가 곧바로 이어지는 특급 대회에서 다시 한번 상위권 성적을 노린다.

임성재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허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7213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1년에 8차례 열리는 PGA 투어 시그니처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시그니처 이벤트는 총상금 2000만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이전 시즌 패택스컵 순위 상위 50명, 올해 투어 우승자, 세계 랭킹 30위 이내 선수 등이 출전하는 대회다.

RBC 헤리티지는 올해 5번째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다.

대개 메이저 대회가 끝나면 톱 랭커들은 1~2주 정도 쉬고 다시 대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스터스에 바로 이어 열리는 RBC 헤리티지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특히 마스터스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이번 대회까지는 240km 정도 떨어져 차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기도 하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오고, 마스터스에서 로리 매킨로이(북아일랜드)에게 져 준우승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셰플러는 올해 마스터스에도 타이틀 방어에 나섰지만 4위로 대회를 마쳤고, 무엇보다 올해 아직 우승이 없다.

지난해에는 마스터스에서 시즌 3승, RBC 헤리티지에서 시즌 4승을 거뒀던 행보를 떠올리면 우승에 마음이 급해질 만하다.

이 대회에서 2022년 우승, 2023년 준우승 등의 성적을 낸 조던 스피스(미국)도 눈여겨볼 선수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중에서는 마스터스 챔피언인 2위 매킨로이와 6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만 이 대회를 쉬어 간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와 안병훈, 김시우가 출전한다.

마스터스에서 5위에 오르며 선전한 임성재는 이 대회에서 최근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다.

우승은 없었지만 2023년 공동 7위를 비롯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순위가 2022년 공동 21위였다. 지난해 공동 12위, 2021년에는 공동 13위 성적을 냈다.

김시우는 2018년 이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적이 있다.

PGA 투어의 예상 파워 랭킹에서는 셰플러가 1위로 꼽혔고, 임성재는 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 세계 테니스 최강자 ‘빛고을 집결’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20일 개막

30개국 200여명 참가…월드투어 진출 사전 무대로



총 상금 10만 달러 규모의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 테니스협회가 주관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광주 오픈의 총 상금은 10만 달러 규모로,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4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우승팀에게는 498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30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ATP 랭킹 상승과 월드 투어 진출을

노리는 중요한 무대다.

국내 선수로는 정현(ATP 472위)과 권순우(ATP 440위)가 와일드카드를 받아 단식 본선에 출전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정현은 최근 국제테니스연맹(ITF) 대회에서 세 차례 우승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외에도 정윤성, 이덕희, 제라드 캄파냐리, 남지성 등 국내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다.

해외 선수로는 ATP 85위 애덤 윌튼(호주), 브랜든 홀트(미국), 크리스토퍼 유뱅크스(미국), 에밀 루수부오리(핀란드) 등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예고하고 있다.

대회는 20~21일 남자 단식 예선전, 22~25일 남자 단식 본선전, 22~24일 남자 복식 본선전, 25일 남자 복식 준결승, 26일 남자 단식 준결승으로 진행된다.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지며 복식 결승전은 26일,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7일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KPGA ‘새로운 왕’ 누가 될까

17일부터 11월까지 대장정

‘일인자’ 장유빈 LIV 무대로

조우영·김홍택 등 ‘호시탐탐’



KPGA 투어의 흥행을 이끌었지만, 올해부터는 LIV 골프로 무대를 옮겼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장유빈과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땀던 조우영(사진)을 꼽는다.

조우영은 아마추어 때부터 장유빈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KPGA 챌린지투어 대회와 KPGA 투어 대

회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스타로 이미 낙점받았다.

장유빈과 나란히 KPGA 투어에 데뷔한 지난해에는 장유빈의 기세에 밀렸지만, 10월부터 6개 대회에서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3위 한 번, 4위 한 번 등 5번이나 4위 이내에 진입하는 상승세를 보인 끝에 상금랭킹 4위에 올랐다.

조우영은 “지난해 시즌이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막판에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 올해 시즌 초반부터 아시아투어 대회에 참가했던 만큼 경기 감각에는 문제없다”며 “개막전에 맞춰 샷과 소프트웨어를 차근차근 정비하고 있다. 전지훈련에서 중점을 둔 점이 100m 이내 플레이였던 만큼 이 부분의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훈련 성과를 짚었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3승을 거두고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오르고 싶다”며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해 PGA 투어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KPGA 투어 흥행 스타로 떠오른 김홍택과 가장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치는 이정환과 함정우, 지난해 신인왕 송민혁 등도 개막전부터 우승해서 올해 KPGA 투어를 점수하겠다는 야심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